

살아있는 여성종합교양지

여성타임즈



긴급진단 / 종교춘추전국시대

종교의 실체 분석

커버스토리 / 단독인터뷰

박영숙부총재가 말하는 북한여성들의 생활상

김총재 2선퇴진 못하는 진짜이유

가수이자 의원 / 밀착취재

요즘 어떻게 보내고 있나, 이선희

서울은지금 / 태양열이 빚어낸 성하의 거리패션

이런여성이 패션을 리드하고 있다

4년간 월 20만원 저축하면

직장여성도 내집마련

경제특집 /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의류업계

918

ASIAN WOMAN TIMES



자연과 대화하고 싶다!
그리고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



0-BL110NB



0-BL108OB

C·O·N·T·E·N·T·S

취재·인터뷰

- | | | |
|----|---------------------------|-------|
| 6 | 커버스토리/박영숙 부총재와 신민당 | - 이명희 |
| 18 | 단독대담/박찬중 의원의 여성관 | - 노상문 |
| 38 | Times 트랙에서 만난사람/사진작가 박인자 | |
| 41 | 이 사람을 아십니까/인신매매 해결사 김홍규 | - 길재호 |
| 50 | 우먼파워/가수, 의정, 자선사업에 바쁜 이선희 | - 길재호 |
| 54 | 연예인터뷰/‘까치며느리’ 하희라 | - 권태훈 |
| 57 | 연예인터뷰/독도의 파수꾼 서유석 | |
| 58 | 연예인터뷰/콘서트 연 김광석 | - 장용규 |
| 82 | 이 사람을 아십니까/여성신문사 발행인 이계경 | - 이명희 |
| 86 | 인터뷰/오고무 창시한 이매방 | |
| 88 | 우먼파워/여성 미술가 정은선 | |
| 97 | 인터뷰/모스크바 국립교향악단 파벨코잔 | - 김혜숙 |
| 98 | 만나고 싶은 사람/‘청울림’ 대표 차광철 | - 장용규 |

생활레저

- | | | |
|-----|--------------------------------------|-------|
| 99 | 애독자카드 | |
| 109 | 독자선물/생활에 도움되는 상품들 | |
| 121 | 포토스페셜 | - 권태훈 |
| 12 | 거리패션/태양열이 빚어낸 서울거리패션 | - 김혜숙 |
| 44 | 세태진단/일본 신여성 | |
| 62 | 해외여행가이드/홍콩 | - 김명운 |
| 66 | CHECK FASHION/Espirit가 연출하는 성하의 패션세계 | |
| 74 | 대중스포츠/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비치발리볼 | |
| 76 | 레포트/‘스트라이크’..볼링은 이렇게 | |
| 84 | 뷰티칼럼/여름철 피부관리 | - 김명숙 |
| 90 | 건강상식/여드름 치료 | - 원문섭 |
| | 눈질환 응급치료 | - 고현경 |
| 115 | 명작비디오 총망라 | |

여성타임즈

1991-8 통권 2호

정기구독안내

월간 여성타임즈는 매월 발행하는 여성종합교양지입니다. 월간 여성타임즈의 정기구독료는 1년 12권에 28,000원입니다. 우송비용은 본사에서 부담하며, 도중에 책값이 인상되어도 추기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구독신청 : (02)523-1611~3
월간 이시안 여성타임즈사 총무국

발행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8-8 벨타워비즈니스텔 306호

TEL : 523-1611~3
FAX : 523-1614



COVER STORY

1백년에 1명 나오기도

힘들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
이 낳은 세기의 여성정치가

박영숙 부총재



박부총재는 1932년 평양에서
3남3녀 중 둘째딸로 태어나
여성단체에 투신 여성운동의
산증인으로 활동했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취재 · 이명희기자

본지 단독 인터뷰

김대중총재 2선포진 못하는 진짜 이유와 북한 여성들의 오늘 현재의 생활 밝히기도

대처전 수상이 영국이 낳은 세기의 여성 정치인이라고 하면 신민당의 박영숙 부총재는 한국이 낳은 세기의 여성 정치인인 것이다.

대처수상과 박영숙부총재는 모두가 여성이면서도 정치 지도자인 공통점이 있고 세계적으로 이와 비슷한 여성 정치인이 있긴 하지만 특히 대처수상이나 박영숙부총재같은 인물을 놓고 1백년만에 1명 나오기 힘든 인물이라고 현대인들은 극찬하고 있다.

박영숙.

어떤 사람들은 영국의 대처수상에 버금가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주요인은 제1야당 부총재라는 점때문이다.

특히 당에서 리드하는 정치를 하는 것과 결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진 야당 정치와는 그 노선과 배경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외로운 정치인이 되어야 함이 아쉽지만 이런것 때문에 박영숙부

총재를 국민들은 대처수상에 비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박부총재의 어린시절

그녀는 한·일합방이 되고 해방되기전인 1932년 평양시 수동에서 3남3녀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다.

박부총재가 국민학교 2학년때 엔지니어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작고하시자. 그녀의 어머니는 가족을 이끌고 만주 길림

성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만주로 이주한 이유는 당시 만주의 그녀의 조부께서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가족의 생계를 잇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

그후 해방을 맞이하자 그녀 집안 모두가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데 귀국후 다시 평양에 자리를 잡고 시국이 어수선해지자 47년 세차례 나누어 6남매가 월남했다.

월남후 광주에 내려와 전남여고 5학년에 편입했다. 그녀가 광주에 터를 잡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숙부가 지역 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남여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던 해에 접어들어 박부총재는 한일 합방의 아픈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민족간의 비극인 6·25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다시 서울로 상경 이화여대 영문과에 입학했다.

원래는 가계에 보탬이 되기위해 의예과를 지망했다고 한다, 하지만 숙부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영문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여성이기 때문에 한·일합방이나 6·25같은 민족 대 혼란 시기였는데도 이에 별다른 동요없이 1955년 이화여대를 졸업했다. 그때의 박부총재 나이 23살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까지 졸업한 아리따운 여성으로 성장한 그녀가 정치일선에 뛰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는 아리따운 평범한 여성이 한국이 낳은 여성최고의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녀의 정치노선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은 없다. 단, 야당이기에 때문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고충과 질책이 있을 따름이다.

박부총재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보면 제반여건상 어느 정치가 못지 않은 길을 걷고 있음을 발견하기에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박부총재가 지금의 신민당과 인연을 맺은것은 87년 당시 여성단체연합회(女聯)수석부회장과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여성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이다.

여성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권 밖에서 아무리 외쳐 보아야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오기 일쑤이자, 여성단체연합회측에서는 여성 스스로 정치 일선에 뛰



● 박부총재는 소탈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

어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의 중론이 모아질쯤해서 평민당으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女聯이 당시 수석부회장인 박영숙부총재를 강력히 추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여성 단체에 몸담아

이로써 32년이라는 긴 세월을 몸바쳐 일해온 女聯부회장·아시아기독교협의회 여성위원장을 비롯하여,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국민운동서울본부 상임대

한국정치사를 들춰봐도 박영숙 부총재만한 여성 정치인의 등장은 없었다. 32년간 여성단체에 몸담아온 박부총재는 신민당의 입당과 함께 여성 정치인으로써 북한을 방문하고 여성을 위해 가족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까지 척척 해내고 있다.

표·KBS 시청료거부 범시민운동 여성연합회장등 단체를 떠나 험난한 가시밭길인 정치일선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이는 여성이 군소정당이 아닌 전통보수 야당의 핵심당직을 맡은 것이 박순천(朴順天)여사 이후 처음 이루어진 것은 여성정치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중요한것은 박영숙부총재의 입당을 계기로 여성정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여성계의 염원이었던 가족법 개정도, 부족하지만 상당부분 여성들의 불이익을 없애주기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그밖에도 남녀 고용 평등법, 유아법...등 하위법 개정에 대전환의 계기를 가져온 것이다.

요즘 한창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도 수년전부터 박부총재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단 몇년전만해도 환경 문제가 나오면 국회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이었지요. 하지만 요즘은 제가 나서지 않아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들을 많이 하지요.”녹색의 전화 이사장이기도한 박부총재.

남·녀 모두 하루8시간 노동

91년 5월 IPU 총회가 북한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총회에 참가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차원에서본 성과라고 생각한다.

박부총재가 47년 가족과 함께 월남한 이후 최초로 고향땅을 밟게된 감회 때문이다. 하지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우리의 속담을 증명이나 하듯이. 옛고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서운함만 가슴에 안고 왔다는 그녀.

반평생을 오직 '여성운동가'라는 외길 인생을 살아온 탓일까? 남의집(?)에 가서도 '여성'의 모습들에 관심이 쏠렸던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북한은 여성정책이 46년동안이나 지탱되어온 곳이어서, 여성들의 국회 진출의 비율이 전체의원의 21%나 된다하니 여성의 지위를 가늠해볼 수 있다.

또한 총 취업률의 48%가 여성들로 이루어졌다. 이는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않는 북한 사회의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북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남·녀모두 하루 8시간이라는 노동 시간을 철저히 지켜나간다. 기혼여성일 경우 특히 2세 미만의 수유기에 있는 여성은 하루 6시간 노동한다. 이는 직장에 탁아 시설이 되어 있어 보통시간외에 2시간씩 여성에게 수유시간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분유보다 모유의 우월성이 입증되고 있는 시기에 맞벌이 부부에 대한 북한의 여성정책을 말해주는 좋은 예이다.

북한은 食表를 가지고 식성에 따라 선택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직접적인 고민중 하나는 가사노동일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북한에서는 사회적인 시설이

되어 있더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밥공장과 빨래공장이 여성들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고 있더군요. 밥공장에서는 ‘쌀표’라는 것을 가져다주면 식성에 따라 국수와 빵으로 바꿀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료 의료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 교육의 혜택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료로 주어진다.

“북에서는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않더군요. 외교관의 딸도 호텔의 접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확실적인 정책에 대해 개방화되는 세계정세에 힘입어 북한주민의 계층간의 갈등이 도래하고 있음을 발견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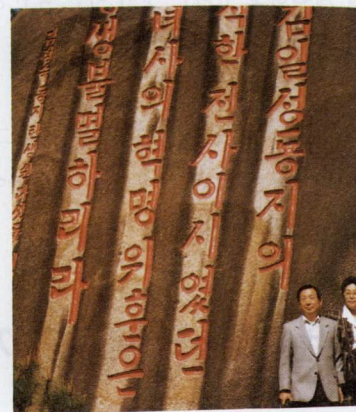
“계층간의 갈등이 있다고 느끼게 된 것은 방문기간동안 관람한 최신 문예작품 영화의 주제에서였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이기심과 부패한 마음(그들은 더러운 본성이라 말한다.)을 없애자는 내용의 계몽 영화였습니다.”면서 “대안으로 전주민들에게 매주 토요일 세시간 동안 정신교육을 시키더군요. 그들은 이것을 전주민의 ‘인텔리겐차화’시킨다 합니다.”

그뿐만아니라 모든 주민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매주 금요일은 사무직 노동을 하는 주민들도 육체노동을 해야 한다.

북에 고향을 두고온 실향민이라면 누구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말할 것이다. 그 염원은 이제 ‘평생의 한(恨)’으로 남아있기에 박부총재도 예외는 아니다.

임수경 애기가 나오면 눈물흘리기도

“임수경씨가 방북후 밝힌 내용에서 북



(위) 북에서는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해주는 역승무원도 여성들이 눈에 띄었다

● 김일성 찬양 일변도의 바위

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강렬한 바람을 표현할때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을 보고 정말 주민들이 그랬을까? 혹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궁금 했습니다.”면서 “그들은 저의 물음에 한결같이 ‘김일성 수령님의 소원이기에 우리의 소망’이라고 대답하더군요.”

북한 주민들의 통일을 향한 열정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라고 느끼게된 안타까움에서 일까? 박부총재는 잠시 말을 잊는다.

“북한의 수도 평양은 깨끗하더군요. 여러곳을 다녀 보았지만 깨끗한 공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행 모두의 공통 의견이었으니 어느정도인지는 짐작이 갈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대로 평양거리에는 인적이 드물더군요.”

라면서 “그리고 가끔 교통 경찰관이나 지

하철 승무원이 여성들이 모습인 모습이 이제롭 더군요.”

공업화나 산업화와 환경공해와는 비례 해서인지, 더딘 산업화의 덕택(?)으로 평양의 환경상태는 대동강에서 낚시질하는 모습과 맑은 대동강물에서 간접적으로 느꼈다는 박부총재.

이모든 북한이 여성정책, 환경정책들에 대한 교류를 위해 올 10월 중순경 민간차원에서 북한·일본·등 3개국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북한방문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박영숙 부총재.

일에서는 ‘황소’라는 별명을 가진 그녀지만 ‘여성’이기에 야당 정치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성의 자연적 도태에 흥분하기도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더 사회적으로 ‘일하는 여성’을 억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임신과 수유 그리고 탁아에 까지 제도적으로 여성을 위해 제대로 되어있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라면서 자유경쟁의 풍토 속에서 여성이 자연적으로 도태되어질수 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를 안타까워 한다.

“물론 여성에게도 문제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여성들이 ‘직업관’을 갖고 일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작은일만 발생해도 ‘그만두겠다’라는 식으로 도피하려는 의식을 깨트려야지요.”라며 일하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말을 잊지 않는다.

오늘의 박부총재가 있기 까지는 그녀 자신의 일에 대한 투철함과 의지 때문이겠지만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도 역할을 훌륭히 해낼수 있었던



●가족간의 화목함을 중요시 여기는 부총재 서울대 수학과에 재학중인 아들과

것은 부군인 안병무(민중 신학자·한신대 명예교수)교수의 정신적인 외조와 외아들의 격려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가족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은다는 박부총재

김총재 2선후퇴 못하는 이유 밝히기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정도로 바쁜 박부총재의 일정만큼이나, 그녀의 보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야 할 일이 여성들의 조직을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기도.

박부총재는 김대중 총재의 2선후퇴 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듯 말을 일축

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로는 김총재를 대신해 야당의 총재역할을 충분히 해낼만한 인물의 공백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광역의회의원 선거를 마치면서 나타난 평균 득표율 30%라는 점인데 이같은 현상은 김총재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어떻게 버리고 2선으로 의미없이 퇴진해야 되느냐고 오히려 반문한다.

또한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어떤 한 특정지역의 특정인을 타지역의 사람들이 퇴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밝히기도 한 박부총재는 정치인으로써 정말 큰 인물임을 느꼈다.